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2. 29

주간 달러/원 동향(12/22~12/26)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환율은 1480원대로 상승 출발. 이어 한은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조선사 수주 소식에도 수급 풀림 지속된 가운데, 지난 미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었던 4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1483.6원까지 상승
- 중반, 정책 당국자들의 공동 구두개입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등 시장안정 의지 드러나자 30원 넘게 급락하며 1,450원선 하회
- 후반, 외환당국 경계감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소식 전해지자 1,429.5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저점 인식 속에 수입업체 결제수요를 비롯한 달러 매수세 유입되자 반등, 1440.3원에 정규장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6.6	1484.9	1,429.5	1,440.3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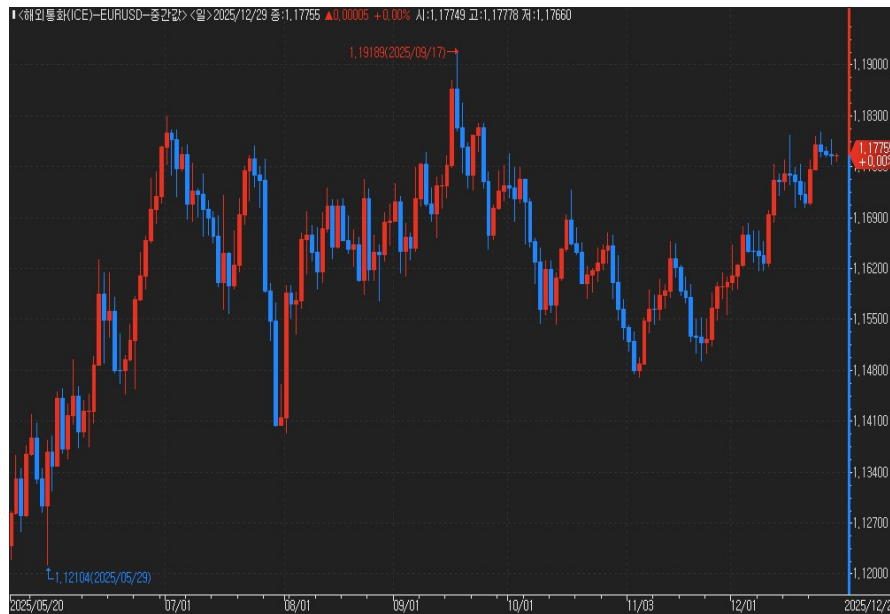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외환당국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러 환율 안정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환율 상승 기대가 억제된 것으로 보임. 여기에, 확산 효과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 물량까지 출회될 경우, 환율 하락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
- 다만, 환율이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기중이던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예상거래범위

1,425원 ~ 1,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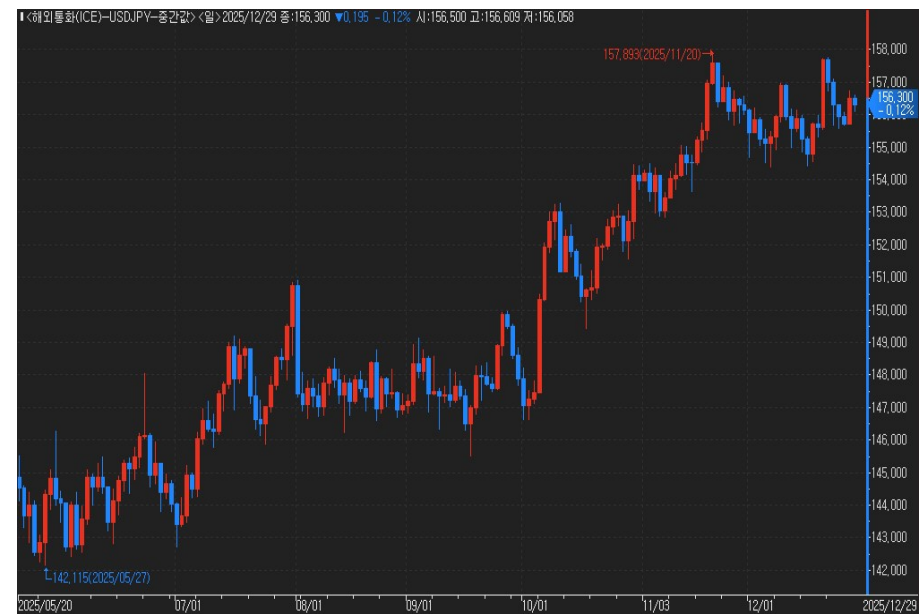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12/22~12/26)



유로화 동향

- 주초,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슈나벨 ECB 집행이사의 발언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조와의 차별화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독일 11월 수입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자 ECB 동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 가운데, 강세 폭 확대되며 장중 1.18달러대 진입
- 중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 논의가 영토 문제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 속에 약세로 전환
- 후반, 유럽 금융시장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하면서 유로화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1.17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10	1.1802	1.1706	1.1775	+0.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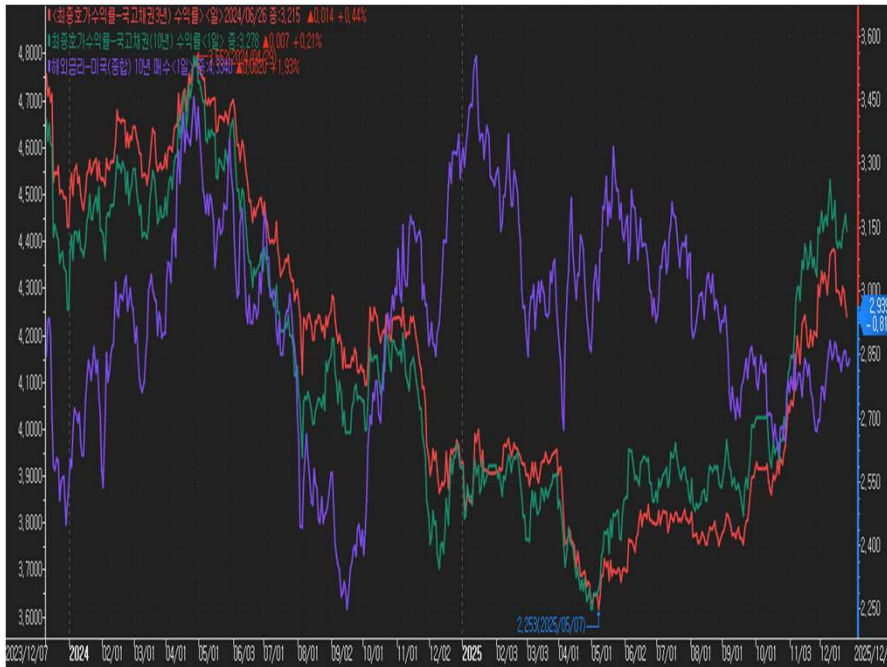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정책 당국자들이 엔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등 구두개입성 발언이 이어지자 엔화는 강세로 전환, 156엔대로 하락 출발. 이어, 미 3분기 GDP가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에 약세 압력 받기도 했으나, 실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일 재무상의 발언에 강세 유지하며 155엔대 진입
- 중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일본 당국이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 지속되면서 추가 강세 시현
- 후반, 일본 11월 산업생산 감소세와 도쿄 12월 근원 CPI 둔화 등에 BOJ 금리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약세로 전환 후 156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7.7	157.7	155.6	156.5	-1.20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22~12/26)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연말에 따른 얇은 장세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영향과 환율 흐름 반영하는 가운데 보험권 출발. 이어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중립적 매파 스탠스를 보인 영향 반영 속 외국인 투자자 추이와 환율에 주목하는 연말 변동성 장세에서 보험권 혼조 흐름 지속되는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채 금리도 중단기 구간 중심으로 상승흐름을 나타냈지만, 국고채 금리는 전일 한은 보고서 발표 이후 변동성 양상 다소 완화 속에 보험권 흐름 지속된 국면
- 후반 들어, 국민연금과 한은의 스왑 및 전략적 환헤지 소식 등으로 환율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 압력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수급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국 뉴욕금융시장의 시 우려 완화, 대내적 반도체 사이클 기대 속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제시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되며 코스피 4,100선 탈환하며 상승 출발. 이어 연말 연휴 등을 앞둔 시점에서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 속에 소위 '산타랠리' 흐름 등으로 강보합 시현
- 중반 들어,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견고한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뉴욕금융시장 투자심리를 뒷받침 한 양상 속 코스피도 미국발 혼풍에 상승세 시현 후,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환율이 급락세를 보임에 따른 변동성 부담 등으로 소폭 하락 전환하는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전일 뉴욕금융시장 혼풍에 따른 국내 반도체 관련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 전환을 주도하며 4,120선 마감